

향후 10년은 네트워크 시대의



새시대를 향해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는 이제 네트워크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술 및 정보전달기술이 발달되고 이들의 결합으로 발전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이동은 동화상까지 가능해지고, 전송속도는 기가·테라단위를 향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한 해에 PC보급이 200만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의 진척은 사회변화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동됨이 규명된 이래 지난 80년대부터 대부분 이루어진 짧은 기간의 일이며, 특히 80

년대 중반이후 10여년 사이에 급속도로 전개되었습니다.

그간 정보화를 위해 우리 정보통신인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고된 사회변화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산업화에 늦어 국력이 뒤쳐진 우리 역사의 뼈아픈 교훈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자각아래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투자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보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의 새로운 인프라로써 기간전산망을 서둘러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에서도 전산자원 도입과 지방과 계열사로 흩어져 있는 자원을 통합하는데 착수하며, LAN과 VAN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도입을 시작하고, 인력양성에 투자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업계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창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협회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업계는 회원사로 참여하여 정부와 업계가, 그리고 업체간에 서로 토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으로써 역할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협회는 정보통신업계를 대표하는 중심단체로서 지난 10년동안 정보통신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일념아래 정보통신부문 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공동애로사항 해결, 제도개선에 참여, 신

침병이 되겠습니다

기술의 도입 가이드, 산업 기초통계 제공, 정보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10년이란 시간의 한 매듭을 마감하고, 새로운 10년을 향해 출발해야 하는 우리 협회의 앞에는 지난 기간 협회가 이루어 놓은 실적보다 더 많고 무거운 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연이긴 하지만 지금 정보통신분야는 큰 환경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속에 시장전면개방으로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므로해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돼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정보화 촉진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데, 정보인프라는 이제껏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나 새로운 정보기술로 인하여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는 부문까지도 포함하여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로·항만·공항 등을 포함하여 사회전반의 네트워크화라는, 말 그대로 사회간접 자본으로서의 시스템 구축의 명제가 주어집니다. 이들 새로운 정보인프라는 온 국민이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우리의 일하는 방법이나 인력의 양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체적으로 고도 성장산업이자 전략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을 계속 육성·발전시켜야 하는 현안도 주어져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가 주인인 만큼 이 부문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그 어느 곳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정보통신의 기기뿐 아니라 서비스까지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품질을 높이고 마케팅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협회는 이런 환경속에서 변화에 뒤따르지 않고 해야할 일들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회의 향후 10년 동안에는 21세기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고 받들어 협회 임직원은 미래를 향해 일로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보다 더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 장 남궁 석